사랑과 전쟁 1 세계적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왼쪽)가 1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오랜 연인 안토넬라 로쿠소와 입을 맞추고 있다. 메시의 결혼식에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동료 등 250여명에 달하는 축구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메시와 로쿠소는 이미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이날 결혼식을 올렸다. 2 매니 파퀴아오(39·필리핀·오른쪽)가 2일(한국시간) 호주 브리즈번의 선코프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복싱기구(WBO)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무명의 제프 혼(29·호주)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하며 '살아있는 전설'파퀴아오는 혼의 적극적인 공세에 점수를 빼앗기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파퀴아오가 공식 경기에서 패한 것은 2015년 5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의 세기의 대결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통산 전적은 59승2무7패다.
로사리오(아르헨티나)·브리즈번(호주) | AP뉴시스

성추문 휩싸인 체조협회…비정상의 정상화 요원

취재파일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전직 간부 성추행 사건 다시 수면 위로
피해자 "참으려 했지만…" 경찰에 고소
니표도바 코치 동행 거부 등 잇단 논란

대한체조협회(회장 한찬건·포스코건설 사장)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동안 잊혀진 듯하던 리듬체조 지도자 A에 대한 협회 전직 고위 간부 B의 '성추행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체육회 리듬체조 전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A가 5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B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년간 B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를 비롯한 여성 지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탄원서가 대한체육회에 접수되면서 내부감사가 진행됐고, B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B는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역체조협회 고위직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에 추대됐다. 탄원이 빗발친 것은 당연지사. 대한체육회는 결국 B의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나 B는 이 결정에 반발하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대한체육회 변호인의 요청으로 4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자신과 '연인관계',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B의 행동에 놀라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3년 전에도 B를 고소하려던 A는 지난달 30일 스포츠동아와 만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3차례 경찰서를 찾아 진술했다"고 말했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사건이 너무 커져 B가 직장을 잃도록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참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최악의 성과에 그친 것도 부족해 뼈를 깎는 자성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를 요직에 앉히려던 대한체조협회의 파행은 또 있다. 올해 2차례 국가대표 선발전을 모두 1위로 마친 김채운(16·세종고)의 첫 시니어국제대회인 제20회 월드게임(20일 개막·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전담 지도자 옐레나 니표도바(43·러시아) 코치의 동행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김채운은 지난해 12월부터 '손연재의 스승'이었던 니표도바 코치의 집중 지도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스포츠동아의 관련 보도 이후 대한체조협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국가대표 코치 동행'이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많은 체조인들은 국가대표 코치가 대표선수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나, 선수-전담코치로 팀을 짜 메이저대회를 소화하는 리듬체조 강국들과는 다른 방향을 고집하는 대한체조협회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한 대한체조협회다.

화끈해진 태권도…펄펄 난 새 얼굴들

한국, 4년 만에 종합우승…심재영·정윤조 등 세대교체 성공
공격 유도 경기규칙 개정 효과…고득점 경기 속출 팬들 호응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이 남긴 것

한국은 6월30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막을 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에서 남녀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에서 금메달 3개(김태훈·이대훈·정윤조)와 동메달 1개(인교돈), 여자부에서 금메달 2개(심재영·이아름)와 은메달 1개(오혜리), 동메달 3개(김잔디·안새봄·김소희)를 따내며 한국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남자대표팀은 종합점수 67점, 여자대표팀은 63점을 받아 각각 2위 러시아(62점·남자), 터키(53점·여자)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대회 이후 4년 만에 세계선수권 종합우승의 기쁨을 맛본 것이다.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쁨을 더했다.

●새 얼굴 등장, 세대교체 신호탄!

심재영(22·한국체대)과 정윤조(22·경희대) 등 새 얼굴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림픽을 예로 들면, 태권도는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 태권도는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다. 여자 57kg급의 제이드 존스(영국), 남자 58kg급의 파르한 아슈르자데 팔라(이란) 등 최강으로 군림하던 선수들도 언제 왕좌를 내줘야 할지 모른다. 실제로 존스는 이번 대회 4강전에서 이아름(25·고양시청)에게 패했고, 팔라는 8강전에서 탈락했다. 특히 남자 58kg급의 정윤조는 이번 대회 우승 전까지 세계랭킹이 105위였는데, 4강전에서 1위 카를로스 나바로(멕시코)를 꺾기도 했다.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점은 앞으로의 희망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개정된 경기규칙 완벽 적응

개정된 경기규칙은 이번 대회에서 호평을 받은 부분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16일(한국시간) 캐나다 버나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기규칙이 이번 대회부터 적용됐는데, 공격 부위별로 배점에 차등을 두고, 감점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의미 없이 3초 이상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행위는 경고 없이 곧바로 감점이다. 이기기 위해선 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그 덕분에 고득점 경기가 속출했고, 팬들의 호응도 좋았다.

남자 68kg급 금메달리스트 이대훈(25·한국가스공사)은 6경기에서 총 162점(경기당 27득점)을 따내며 공격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에 이대훈은 "1등을 했으니 새 규정에 적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자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여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 오혜리는 "체력소모가 크지만, 파이팅 넘치는 태권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존스컵 '장신 라인업'…허재 감독의 실험

이대성·전준범·임동섭 등 대표팀 합류
허 감독 "선수조합 다양하게 꾸려볼 것"

한국남자농구는 국제무대에 출전할 때면 늘 선수들의 기량을 떠나 신장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한 시절을 풍미한 앨런 아이버슨(42)은 '신장보다 중요한 것은 심장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한국남자농구는 아시아무대에서조차 높이의 우위를 점한 적이 없었다. 2000년대 들어 센터 포지션의 높이는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됐으나, 가드와 슈터 포지션에선 아쉬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 포지션의 장신화'는 한국남자농구의 숙원이다.

허재(52) 감독이 이끌고 있는 남자농구대표팀은 8월 8일부터 20일까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 출전한다. 이에 앞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대만에서 펼쳐지는 윌리엄존스컵에 나선다. 남자농구대표팀은 존스컵에서 '장신 라인업'을 테스트한다.

장신 라인업을 꾸릴 토대는 마련됐다. 가드 이대성(190cm), 슈터 전준범(195cm·이상 모비스), 임동섭(198cm·국군체육부대) 등 같은 포지션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에 합류했다. 허 감독은 "존스컵에서 선수조합을 다양하게 꾸려보려고 한다. 장신 라인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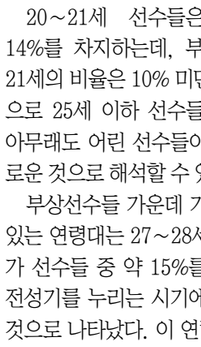
허 감독을 보좌하고 있는 김상식(49) 코치는 "점진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흐름에서 가드, 슈터 포지션에서 신장이 좋은 자원이 나왔다. 이대성은 아직 풀타임 포인트가드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달 일본대회(동아시안컵)에서 수비와 득점에서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전준범도 장신 슈터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동섭은 1990년대였으면 센터를 봤을 신장의 선수인데, 슛이 좋고 돌파력도 있다. 국제대회 경험을 쌓고 한 단계 기량이 더 무르익는다면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기대가 크다"며 존스컵에서 이들이 가능성을 입증해주길 바랐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평창 홍보 나선 하인스 워드 한국계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왼쪽)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나선다. 워드는 2일 이희범 올림픽 조직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받은 뒤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몫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뉴시스

할로 분데스리가

노장들이 더 안 다친다? 나이-부상의 함수관계



구자철

운동선수에게 부상이란 불청객과도 같다. 부상예방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처음에는 경미한 듯한 부상이라도 방심하면 커지는 만큼 부상예방과 관리는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의 부상 통계와 관련한 흥미로운 리포트 한 편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역시 어린 선수들보다는 나이 많은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보다는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된다.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부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푸스발페어레충'에선 부상을 당한 선수들의 연령을 조사했다. 2016~2017시즌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5.3세였고, 부상을 입은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5.6세였다. 이 통계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나이와 부상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20~21세 선수들은 분데스리가에서 총 14%를 차지하는데, 부상선수들 중에서 20~21세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25세 이하 선수들의 부상빈도는 낮았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부상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상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연령대는 27~28세였다. 이들은 분데스리가 선수들 중 약 15%를 차지하는데, 선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에 부상과도 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 부상선수들의 비율은 약 20%로,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했다.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왕성한 27~28세 선수들의 부상빈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도저히 나이 때문만으로는 볼 수 없을 듯하다. 대개 감독들은 신체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성숙된 20대 중반의 선수들을 선호하고 출장 기회를 많이 보장하는 편이다. 따라서 해당 선수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이보다 어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출장 기회가 적고, 신체적으로도 여전히 성장하는 단계인 까닭에 부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누적된 잔부상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부상이 잦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상선수들 중 약 3분의 2는 경기나 훈련 도중이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나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은 각각 29.6%와 11.7%로 집계됐다.

결국 부상은 선수 스스로 극복할 문제이고, 자신만의 부상방지 노하우도 갖추고 있어야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는 몰라도 노장으로 취급받는 30대에선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의 비율이 줄어들며 어린 선수들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